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탈북자에게 미치는 영향 : 남한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김 영 만

대한민국 국방부

본 연구는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탈북자 자신 및 남한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전혀 없는 탈북자(혹은 무경험자) 66명과 평균 2.7년의 생활경험이 있는 탈북자(혹은 유경험자)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가치관, 성격특성, 부정적 성행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 차원에서 남한사람과 자기 자신을 평가하였으며, 남한사회에 대한 현실인식 및 정치적 통제감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남한사회 유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해 남한사람 및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특성을 더 부정적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성적 일탈행위에 대하여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도 덜 강했다. 또한, 유경험자들은 무경험자에 비해 현실인식차원에서 남한사회를 더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남한사회의 정치적 통제감도 더 낮게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를 문화 및 생활경험의 변동에 대한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탈북자, 남한사회에 대한 경험, 자기인식, 가치관, 성격특성, 성역할 고정관념, 현실인식

[†] 교신저자 : 정태연,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tjung@cau.ac.kr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정치·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보다는 답보 내지 퇴보의 길을 걸어왔으며, 20세기 말에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식량배급이 중단된 1993년 북한을 이탈하는 사례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대홍수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했던 1995년에는 탈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쟁 이후 2003년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4163명에 이르며, 2004년에는 작년에 비해 10-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우영, 2003).

이처럼 탈북자가 매년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다(김영수, 2003; 정태연, 최영진, 김영만, 2003; 황무임, 1998). 가장 심각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각한 식량난을(박순영, 2003; 박현선, 2003a) 해소하기 위해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 탈북의 또 다른 원인은 북한의 정치 체제에 대한 환멸이다(김영수, 2003; 정태연 등, 2003; 황무임, 1998). 북한사회는 철저한 감시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비인도적으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충성심을 강요한다. 이에 북한주민들은 극심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를 피해 탈북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사회에 대한 정보의 획득, 경제적 악화로 인한 사회기강의 해이,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가치관 변화가 탈북을 증가시키고 있다(김영수, 2003).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제 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는데, 주로 중국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평균 2년 이상 체류한다(이우영, 2003).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해 보인다. 가령,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공안들에 의해 체포될 수도 있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와 성폭력의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탈북자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임금을 착취당하거나 불법 감금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성기중, 윤여상, 1999; 임채완, 2001).

이처럼, 탈북자들은 탈북 전 북한에서 그리고 탈북 후 제 3국에서 고단한 삶을 산다. 이런 역경 속에서 그들 대부분은 한국으로 가기를 소망하는데(김영수, 2003), 그 이유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아마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한가? 탈북자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독고순, 2001; 박현선, 2000; 이우영, 2003; 전우택, 1999a, 1999b;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 1997; 채정민, 2003; 채정민, 한성열, 2003),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많은 좌절과 어려움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통,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 등을 경험한다(전우택 등, 1997).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남한사회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살면서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탈북자들 자신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자의 변화 즉, 남한사회 및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어떠한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한국사회 무경험자와 유경험자를 비교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인과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특성 및 성에 대한 인식에서 이 두 집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남한사회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변화

남한사회에서 직접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것

이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남한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들이 처음 가지고 왔던 꿈과 기대들은 실망과 좌절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한국사회의 현실을 실감하게 하는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다(윤덕룡, 2002). 1999년 이전의 경우, 한국정부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얻고 나면 남는 돈은 경우 700-800만원에 불과했다. 1999년 법개정으로 지원금이 상향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정착해서 살기가 쉽지 않다(윤덕룡, 2002). 또한, 탈북자들은 구직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한다. 2000년 통일부 공식집계에 따르면, 전체탈북자의 19.3%, 1990년대 이후 입국자 중 26.3%가 실업자이다. 2002년 양천구에 살고 있는 57가구에 대한 조사에서는 75%가 실업상태에 있었다(이우영, 2003).

또한, 최근의 탈북자들은 가족 단위인 경우가 많고, 여자, 어린이와 노약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2002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아동과 노인이 20-30%를 차지하고 있다(이우영, 2003). 이것은 여성문제, 노인문제, 육아문제를 야기하는데, 남한의 낙후된 사회복지체제로 인해 탈북자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속한 사회계층이 남한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윤인진(1999)에 따르면, 1980년대 이전의 탈북자들이 공작원과 군인 등 특수계층인 반면, 1990년 이후의 탈북자들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입국한 탈북자의 직업이나 지위를 보면, 별목공, 농장원, 노동자 등 하류계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학생, 무직 등에 속하는 사람들이 약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탈북자의 신분과 그가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가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로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북한에서 일반서민을 탄압했던 지도급 인사

들이 남한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살아온 이들이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를 갑자기 접하면서 사고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감정, 생각, 인식, 충동을 경험하게 된다(윤인진, 2000b). 예를 들면, 이들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남한 사회에 와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군다나, 이들은 경제적 열등감과 좌절(전우택, 민성길, 1996), 지위의 하락과 기존 지위의 상실, 저임금과 실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Hirayama, Hirayama & Cetingok, 1993; 이기영, 1998에서 재인용)를 경험한다.

이처럼, 탈북자들이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를 접하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한다. 이 속에서 탈북자들은 남한사회가 노력에 따라 보상받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사회라고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가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박현선, 2003a). 또한, 한국사회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 탈북자들은 남한사회가 극도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부정부패, 약육강식의 경제논리 등의 부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현성일, 1998).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부적응과 반감 속에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체감하게 되는데, 가령 그들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학벌주의, 상업주의, 그리고 학연, 혈연, 지연 등에 근거한 연고주의의 폐해를 절실히 경험하게 된다(김명세, 1998; 이주철, 2003; 정병호, 2003). 가령, 탈북자들은 북한체제와 비교하여 한국의 정치를 이해할 때, 민주적이고 법치적이며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점을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서도, 지역주의, 미국에의 종

속, 금전적 부정선거, 편가르기 식의 당파적 갈등과 무정부적 요소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주철, 2003; 현성일, 1998).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고, 혹은 자신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실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국정치에 대한 이들의 인식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남한사람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변화

탈북자들은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남한사람들과의 직접적 교류를 통해서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람의 가치관이나 성격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은 남한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윤인진, 2000a; 전우택, 민성길, 1996), 그 책임이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은 비타협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및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전우택, 윤덕룡, 강성록, 김형중, 민성길, 2002), 감수함을 표시하지 않거나 음주맥락에서 친목이나 화합을 다지는 사회적 기술을 결여하고 있다(김중태, 2003). 반면에, 남한사람들은 탈북자들에 대해서 여러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예로 김중태, 2003; 김혜숙, 2000; 전우영, 조은경, 2000), 실제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기도 한다(이우영, 2003; 전우택 등, 2002).

탈북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남한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과는 이질적인 그래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특성들을 체험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언급한 한국사회의 자본

주의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가령, 탈북자들은 자본주의에 근거한 남한사회를 매우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데(현성일, 1998), 이것은 결국 남한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그대로 직결될 수 있다. 21명의 탈북자를 면담한 결과도 전우택, 민성길, 1996) 거의 동일했다. 이들은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된 남한사람들의 개인주의적 특성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이들은 소비행동과 욕구표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이 사치스럽고 퇴폐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다(성영신, 서정희, 심진섭, 1995). 직업장면과 관련해서 조직의 특성이나 대인관계의 특징도 남북한 간에 다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직장에서의 상사-부하 관계에서 평등의식이 강한 반면에 남한의 경우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특성이 강해서(윤인진, 2000b), 탈북자들은 직업장면에서 이러한 차이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가능성이 높다.

서구문화의 유입과 관련해서 볼 때, 탈북자들은 성에 관해서도 남한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유교에 기초한 전통적인 가치관단체체는 남녀 간의 성행동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서구문화는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진보적인 가치관을 함양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전통적 특징인 유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가부장적 가족주의적 가치체계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아존중사상 조상숭배, 친족간의 활발한 교류, 남성우위사상 등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이운죽, 1990; 한성열, 2000). 이는 북한 사람들이 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연구에서도(전우택, 민성길, 1996), 이들은 남존여비의 사상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더 서구화된 남한사람들은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150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성역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더 규범화되고 남녀 차별적이며 보수적인 성역할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정진경, 2002).

남한사람들이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그들의 지나치게 강한 남존여비개념, 성역할 고정관념, 예절의 대한 지나친 강조 등이다(전우택, 민성길, 1996). 또한 탈북자들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성역할과 부부관계 그리고 개방된 성을 남한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한다(이주철, 2003).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그리고 실제 한국사회의 현실을 볼 때, 어쩌면 이들은 남한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점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 자신들의 변화

남한사회에서 직접 생활을 하면서 탈북자들은 이 사회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관여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는 탈북자 자신의 특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가 다른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남한에 오기 전에 탈북자들은 자신이 남한사람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남한사회에서 살다보니까 남한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적응이란 한 개인이 특정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부 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윤인진, 2000a). Berry와 Kim (1988, 한성열, 2000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문화 적응의 유형을 집단별 또는 개인별로 4가지 즉, 동화, 통합, 격리 그리고 주변화/탈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동화는 자기 고유의 문화적 주체성을 버리고 주류문화에 흡수되는 형태를 말한다. 통합은 자기 고유문화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상태이다. 격리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고유한 문화적 주체성만을 고려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주변화/탈문화 상태로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주류문화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탈북자들 역시 남한사회에 적응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네 가지 적응유형 중에서 동화나 통합에 가장 가까울 수 있다. 탈북자들의 북한이탈 이유를 볼 때(김영수, 2003; 박순영, 2003; 박현선, 2003a; 정태연 등, 2003; 황무임, 1998),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이 남한사회로의 입국이 모두 자발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탈북자들이 적어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는 남한사회로의 동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외의 측면들에서 가령, 성에 대한 개방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특성보다는 전통적 특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적어도 정착 초기에는 통합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문화체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격리와 같이 남한의 문화를 거부하고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나, 두 문화를 모두 거부하여 주변인으로 남고자 하는 주변화/탈문화의 형태는 정착 초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신에, 동화나 통합과 같은 방식을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에 대한 문헌들을 보아도, 이러한 현상이 통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로, 김누리, 노영돈, 2003). 즉, 통독 초기에는 한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여러 이질적이고 갈등적인 요인들을 은폐시키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동서독 사람들이 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 구동독 사람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통일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략적으로 탈북자의 적응이란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공산주의 및 주체사상의 확립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남한의 자본주의적 가치관 및 삶의 방식 등을 수용하며, 경제적으로 적정 수준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심리적으로는 만족감과 소속감을 성취하는 것이다(윤인진, 2000a). 이러한 문화적응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마련이다(한성열, 2000).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경우 적극적으로 재사회화 교육을 통해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가치 및 규범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가 입국한 탈북자를 하나원에서 일정 기간 교육한 후, 남한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 존재하는 탈북자 관련 많은 기관이나 민간시설도 대부분의 측면에서 그들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남한사회

에 적응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 탈북자들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의 경향성은 기존의 사회에서 자신들이 교육받고 경험한 방식대로 새로운 사회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것이다. 즉,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학습한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남한에서의 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전우택, 1999).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도 탈북자들의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은 한국사회에서 직면하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의 사회체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북한사회에서의 문제해결방식이 남한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적응과 관련해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모두 이러한 부적절한 문제해결 방식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경우에서처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정은 스트레스와 좌절 등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을 야기하기 마련이다(Hirayama et al., 1993; 이기영, 1998에서 재인용).

비록 탈북자들의 적응적 노력과 남한사회의 적극적 교육을 통해서 문화적 동화가 이들에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측면에서 이러한 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특히,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단기적인 경우에, 탈북자들은 기존의 특정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특성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특성에 대한 자아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비교대상의 성취수준이 자신의 성취를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Festinger, 1954), 상대적 박탈감이론에서처럼(Crosby, 1976), 나의 경제적 수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된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탈북자들의 자아평가가 남한사람과의 직접적 경험에 근거한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한사회에 살면서 탈북자들의 성고정관념이 실제로 약화될 수도 있지만, 성고정관념에 대한 실질적 변화 없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혹은 더 높은 남한사람들의 성고정관념과 비교해서 자신의 성고정관념을 과거에 비해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

행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성역할 고정관념을 평가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과제

본 연구는 탈북자 중에서 남한사회 무경험자와 유경험자 간에 남한 및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사회와는 달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견지하는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은 탈북자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 입국할 당시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달리, 막상 남한사회에서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탈북자들은 남한사회 및 남한사람들에 대하여 처음과는 다르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 역시 스스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사회 무경험자와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현실인식 차원과 정치적 통제감을 평가하였으며, 남한사람 및 자신에 대하여 가치관, 성격특성, 성적 일탈

본 연구의 참가한 탈북자 중에서 한국사회 무경험자는 65명(남: 26명, 여: 38명, 무응답: 1명)으로 평균 연령은 34.62세($SD = 6.93$ 세)였다. 이들의 학력과 직업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아 최하층 30명, 하층 24명 및 상층 2명이었으며, 8명만이 당원이었다. 한국사회 유경험자는 99명(남: 40명, 여: 59명)으로, 평균 연령은 남자 34.6세($SD = 13.2$ 세), 여자 31.4세($SD = 9.8$ 세)로 전체 33.0세였다.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기간은 2003년 9월을 기준으로 1년 이하가 21명, 1-2년이 37명, 2-3년이 26명, 3년 이상이 15명으로, 평균 2년 8개월이었다. 이들의 학력과 직업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치와 측정도구

남한 사회에 대한 탈북자들의 현실인식을 측

표 1. 남한사회 무경험자와 유경험자의 학력과 직업

학 력	북한에서의 직업							
	무경험자	유경험자	직업	무경험자	유경험자	직업	무경험자	유경험자
중졸	30	5	농민	6	21	기관원	11	0
고졸	16	32	군인	2	6	회사원	12	0
(전문)대졸	6	55	교사	0	14	무직	4	0
기타	8(유학)	4(대학원)	노동자	0	31	기타	8	9

정하기 위해서 이재창, 최운보, 정영애와 최경선(1983)이 사용한 현실인식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1에서부터 5까지) 양극척도로 물질주의, 실리주의, 편법주의, 안정주의, 귀속주의 그리고 온정주의를 측정한다. 물질주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리다”, 실리주의는 “아무리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떼뻗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다소 떼뻗하지 못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편법주의는 “잘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령과 수단이 좋아야 한다-잘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안정주의는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커다란 변화는 원치 않는다-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는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귀속주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출세하고 싶다-능력이 부족하여 출세를 못하더라도 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출세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온정주의는 “부모와 자식간에 돈 계산을 비롯하여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부모와 자식이라고 해도 계산을 비롯하여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해야 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탈북자들이 지각한 남한 사회의 정치적 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Paulhus(1983)의 통제영역 척도(Spheres of Control)의 3개 하위척도 중에서 정치적 통제감(political control)에 대한 10개의 문항을 한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리커트형 7점(1에서부터 7까지) 척도를 이용한다.

탈북자들이 지각한 남한사람의 가치관 및 그들의 자신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재창 (1983)이 사용한 가치지향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현실인식척도와 동일하며, 현실인식에 대한 6개 차원의 특성을 Likert형 5점(1에서부터 5까지) 척도 상에서 측정한다.

탈북자들이 지각한 남한사람의 성격특성 및 그들의 자신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재창 등(1983)이 사용한 성격특질형용사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1에서부터 5까지) 양극척도로 폐쇄적, 권위적, 이기적, 감각적, 획일적, 현실적, 무기력, 퇴폐적, 순종적, 그리고 보수적 특성을 측정한다.

탈북자들이 지각한 남한사람의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그들의 태도를 정하기 위해서 Rettig와 Pasamanick(1959)의 도덕적 행동 척도(Moral Behavior Scale)의 한 하위척도인 성적 일탈행위(Sexual Misbehavior)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3문항 즉, 결혼 전 성관계를 갖는 것, 결혼 후 부정한 성관계를 갖는 것, 위험에 처한 상대방을 방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리커트형 10점(1에서부터 10까지) 척도를 이용한다.

탈북자들이 지각한 남한사람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그들의 자신의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Felid(1978)가 개발한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Likert형 7점(1점부터 7점까지)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절차

한국사회 무경험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그들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탈북자들을 대형 강의실에 소집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동일한 질문을 한국사람과 자신에

대하여 평가할 때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켰다. 가령, 가치관을 평가할 때, 한국사람인 경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남한사람들은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 적절한 숫자에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와 같은 지시문을 제시한 반면 자신인 경우 “여러분은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절한 숫자에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와 같은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 유경험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서울에 있는 탈북자들의 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른 탈북자들을 접촉할 수 있는 한 탈북자에게 실시할 설문지를 주고 설문지를 실시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몇몇 배경변인에 대한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무경험자들의 설문지와 동일했다. 설문지를 실시한 사람이 모든 설문지를 수거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했다. 무경험자와 유경험자 모두에게 설문지는 익명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지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탈북자들에게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줄 것을 수 차례 강조하였다. 탈북자들이 설문을 완성하는 데는 약 5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 과

본 절에서는 남한사회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과 정치적 통제감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때, 남한사회 무경험자와 유경험자 간의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그 다음, 탈북자들이 평가한 남한사람과 자신의 가치관, 성격특성,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남한사람 및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남한사회 무경험자와 유

경험자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

남한사회에 대한 6개의 현실인식차원에서 탈북자 유형(남한사회 무경험자와 유경험자)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물질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원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이러한 차원에서 남한사회의 점수를 더 높게 평가했다.

남한의 정치적 통제감에 대한 평가에서 탈북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한사회 유경험자($M = 4.36, SD = .73$)가 무경험자($M = 4.83, SD = 1.16$)에 비해 남한사회의 정치적 통제감을 더 낮게 평가했다, $F_{(1, 144)} = 4.82, p < .05$.

표 2. 탈북자 유형별 남한사회인식(표준편차)

인식차원	탈북자1	탈북자2	F
물질주의	4.12(.98)	4.38(.80)	3.47 ⁺
실리주의	3.43(1.15)	4.29(.85)	29.88***
편법주의	3.53(1.31)	4.05(.94)	8.67**
안정주의	3.62(1.37)	3.06(1.00)	8.18**
귀속주의	2.05(1.25)	3.38(1.21)	46.04***
온정주의	2.08(1.25)	2.95(1.43)	17.36***

주. 평가는 5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

⁺ $p < .10$ ^{**} $p < .01$ ^{***} $p < .001$.

표 3. 탈북자 유형과 평가대상 유형에 따른 가치관 점수(표준편차)

가치차원	무경험자		유경험자		F		
	남한사람	자기평가	남한사람	자기평가	탈북자유형	평가대상	상호작용
물질주의	3.13(1.50)	1.76(1.00)	4.05(1.24)	2.97(1.39)	42.94 ***	82.88 ***	1.10
실리주의	2.74(1.47)	1.47(1.08)	2.73(1.45)	3.38(1.30)	35.21 ***	3.99 *	40.29 ***
편법주의	2.17(1.33)	1.52(.84)	3.64(1.39)	2.41(1.40)	49.98 ***	54.77 ***	6.28 *
안정주의	1.60(.98)	1.59(1.05)	2.05(1.23)	2.27(1.17)	17.62 ***	.52	.98
귀속주의	3.03(1.45)	1.84(1.25)	3.41(1.39)	2.47(1.32)	9.59 **	48.92 ***	.54
온정주의	1.35(.86)	2.14(1.58)	1.93(1.21)	2.62(1.42)	8.92 **	43.41 ***	.04

주. 평가는 5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p < .05$ ** $p < .01$ *** $p < .001$.

남한사람 및 자신에 대한 인식

가치관에 대한 평가

6개의 가치관차원 평가에서 탈북자 유형(남한사회 무경험자와 유경험자) 및 평가대상자(남한사람과 자기 자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혼합모형 2 X 2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모든 차원에서 탈북자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안정주의를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평가대상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했다. 실리주의와 편법주의에서는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가치관 평가에서 탈북자 유형에 따라 남한사람에 대한 평가와 자기평가 각각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평가대상에 대해서 탈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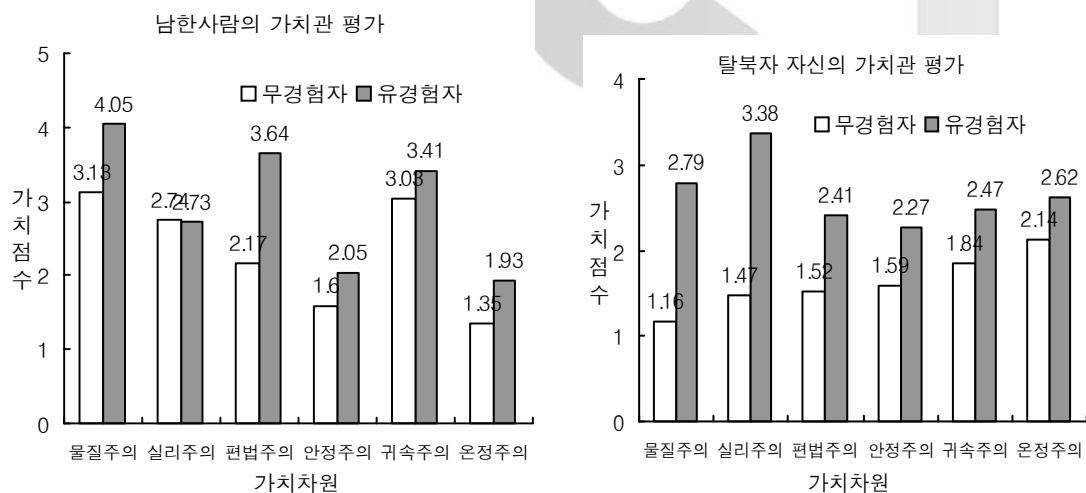


그림 1. 남한사람과 자신의 가치관 평가에서 탈북자 유형 간 비교

자 유형에 따른 단순효과(simple effects)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1의 상단에서 보듯이, 실리주의와 귀속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차원에서 남한사회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남한사람들의 점수를 더 높게 평가했다, 순서별로 $F_{(1, 162)} = 17.12, 44.62, 5.86, 10.25, p < .05$. 그림 1의 하단에 제시한 자기평가의 경우, 온정주의를 제외한 모든 가치차원에서 남한사회 유경험자가 평가한 점수가 무경험자가 평가한 점수보다 더 높았다, 순서별로 $F_{(1, 162)} = 35.60, 93.34, 22.07, 13.79, 8.79, p < .01$.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

10개의 성격특질차원에 대한 평가에서 탈북자 유형 및 평가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혼합모형 2 X 2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획일적 및 순종적 차원을 제

외한 모든 차원에서 탈북자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감각적 차원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평가대상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권위적, 퇴폐적 및 보수적 차원에서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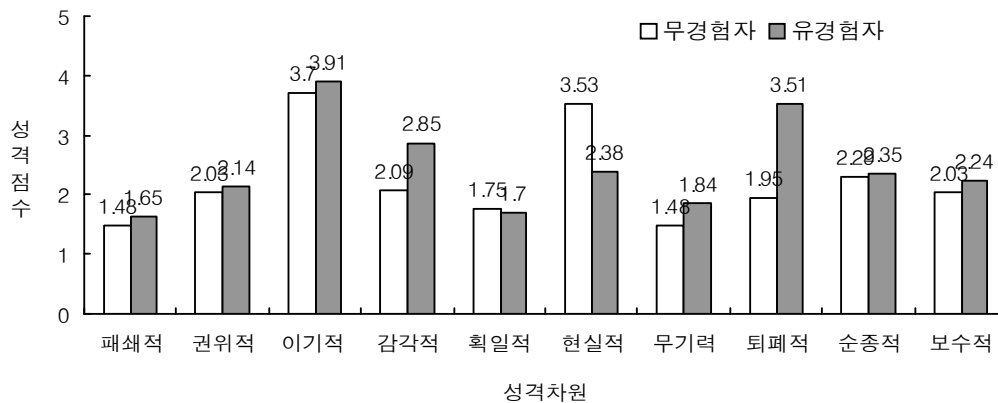
남한 사람 및 자신에 대한 성격평가가 탈북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평가 대상자에 대해서 탈북자 유형에 따른 단순효과(simple effects)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의 상단에서 보듯이, 남한사회 유경험자가 평가한 남한사람의 점수가 감각적, 무기력, 퇴폐적 차원에서는 유의미하게 더 높고 현실적 차원에서는 더 낮았다, 순서별로 $F_{(1, 162)} = 10.22, 23.67, 6.08, 63.33, p < .05$. 그림 2의 하단에 제시한 자기평가의 경우, 남한사회 유경험자가 평가한 점수가 권위적, 감각적, 무기력, 퇴폐적 및 보수적 차원에서 더 높았으며, 현실적 차원에서는 더 낮았다, 순서별로 $F_{(1, 162)} = 19.75, 5.89,$

표 4. 탈북자 유형과 평가대상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표준편차)

성격차원	무경험자		유경험자		탈북자유형	F		상호작용
	남한사람	자기평가	남한사람	자기평가		평가대상		
폐쇄적	1.48(1.11)	2.08(1.10)	1.65(1.12)	2.34(1.04)	5.01 [*]	27.91 ^{***}	.14	
권위적	2.03(1.53)	2.18(1.22)	2.14(1.37)	2.97(1.04)	8.28 ^{**}	15.96 ^{***}	8.04 ^{**}	
이기적	3.70(1.36)	2.96(1.13)	3.91(1.17)	3.23(.95)	4.14 [*]	27.51 ^{***}	.00	
감각적	2.09(1.29)	2.19(1.21)	2.85(1.52)	2.67(1.32)	14.35 ^{***}	.06	.96	
획일적	1.75(1.07)	1.97(1.14)	1.70(.86)	2.15(1.05)	2.34	7.81 ^{**}	1.14	
현실적	3.53(1.59)	3.87(1.51)	2.38(1.25)	2.86(1.38)	29.35 ^{***}	8.59 ^{**}	.16	
무기력	1.48(.90)	1.77(1.00)	1.84(.93)	2.21(.94)	7.71 ^{**}	10.28 ^{**}	.19	
퇴폐적	1.95(1.18)	1.47(.89)	3.51(1.15)	1.91(.92)	60.16 ^{***}	85.21 ^{***}	21.22 ^{***}	
순종적	2.29(1.23)	2.89(1.46)	2.35(1.11)	3.20(1.01)	2.42	39.58 ^{***}	1.48	
보수적	2.03(1.41)	1.81(1.16)	2.24(1.19)	3.26(1.21)	30.65 ^{***}	7.82 ^{**}	17.80 ^{***}	

주. 평가는 5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 * $p < .05$ ** $p < .01$ *** $p < .001$.

남한사람들에 대한 성격평가



탈북자 자신의 성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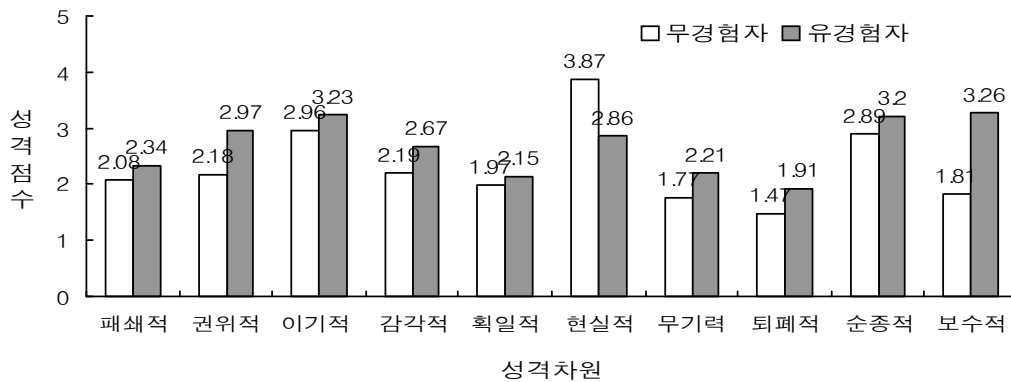


그림 2. 남한사람과 자신의 성격특성 평가에서 탈북자 유형 간 비교

8.43, 10.54, 59.40, 19.81, $p < .05$.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태도 및 성역할 고정관념

3개의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진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평가에서 탈북자 유형과 평가대상자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혼합모형 2 X 2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모든 하위차원 및 전체점수에서 탈북자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했다. 또한, 평가대상자에 따른 주효과도 모든 하위차원 및 전체점수에서 유의미했다. 반면에, 이 두 독립변인 간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탈북자 유형에 따라 남한사람에 대한 평가와 자기평가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평가대상에 대해서 탈북자 유형에 따른 단순효과(simple effects)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3의 상단에서 보듯이, 남한사회 유경험자가 평가한 남한사람의

표 5. 탈북자 유형과 평가대상자의 유형에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표준편차)

성적 일탈행위	무경험자		유경험자		탈북자유형	평가대상	상호작용
	남한사람	자기평가	남한사람	자기평가			
혼전 성관계	5.79(3.59)	8.15(2.75)	4.17(2.39)	7.00(2.62)	14.61 *	96.97 *	.88
결혼 후 부정	6.92(3.11)	9.29(1.87)	5.98(2.47)	7.75(2.05)	14.93 *	85.66 *	1.85
비인간적 대우	8.10(2.73)	9.66(1.52)	6.32(2.41)	8.03(1.71)	36.67 *	60.63 *	.16
전체	6.93(2.66)	9.04(1.43)	5.47(1.84)	7.59(1.89)	30.85 *	124.44 *	.00

주. 평가는 10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높음을 의미.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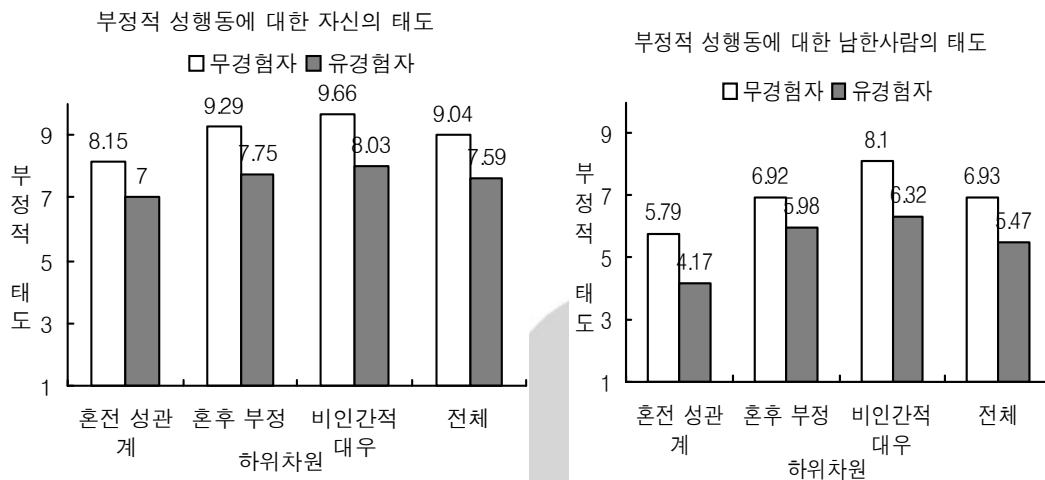


그림 3.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남한사람과 자신의 부정적 태도 평가에서 탈북자 유형 간 비교

점수가 모든 하위차원 및 전체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순서별로 $F_{(1, 162)} = 12.40, 4.38, 18.51, 16.77, p < .05$. 그림 3의 하단에 제시한 자기평가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남한사회 유경험자가 평가한 자신의 점수가 모든 하위차원 및 전체적 수준에서 더 낮았다, 순서별로 $F_{(1, 162)} = 7.31, 23.85, 38.84, 27.40, p < .01$.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북자 유형과 평가대상자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혼합모형 2 X 2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탈북자 유

형 및 평가대상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했다. 또한,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북자 유형에 따라 남한사람에 대한 평가 및 자기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평가에 대해서 탈북자 유형에 따른 단순효과(simple effects)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한사람에 대한 평가의 경우, 남한사회 유경험자가 평가한 남한사람의 점수가 더 낮았다, $F_{(1, 162)} = 38.58, p < .001$. 자기평가의 경우에도 남한사회 유경험자가 평가한 점수가 더 낮았다, $F_{(1, 162)} = 5.10, p < .05$.

표 6. 탈북자 유형과 평가대상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표준편차)

변인	무경험자		유경험자		F		
	남한사람	자기평가	남한사람	자기평가	탈북자유형	평가대상	상호작용
성역할 고정관념	4.87(1.04)	5.25(.94)	3.95(.76)	4.67(.67)	20.23 *	96.05 *	30.99 *

주. 평가는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탈북자들의 남한 및 자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한사회의 경험이 남한사회, 남한사람 및 자기 자신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을 더 긍정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좀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남한사회에 대한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탈북자들은 서구문화의 특성을 남한사람들에게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의 특성을 자신들에게 더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한국사회 및 한국사람에 대한 인식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남한사회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안정주의에서 남한사회의 점수를 더 낮게 그리고 나머지 차원에서의 점수를 더 높게 평가했다. 또한, 유경험자들이 남한사회의 정치적 통제감 점수를 더 낮게 평가했다.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도 남한사회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남한사람의 가치관을 더 물질주의적이고 편법적이며 온정적이고 실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성격평가에서도 유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해 남한사람들을

더 퇴폐적, 감각적, 무기력하며 덜 현실적이라고 지각했다.

북한의 사상적 체제나 사회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탈북자들이 안정주의나 온정주의 차원 그리고 현실적 성격특질차원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차원들에 대해서는 탈북자들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특히 서구 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남한사회 및 남한사람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이 결과가 시사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은 서구의 자본주의와 전통적 봉건사회체계를 부정하기 때문에(박현선, 2003b), 우리가 전통문화와 서구문화의 부정적 특성이라고 판단하는 특성들을 탈북자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탈북자들은 남한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몇몇 부정적 가치관 및 성격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남한사회에 대한 경험이 이러한 부정적 지각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 지각이 물질주의, 편법주의, 이기적, 감각적, 퇴폐적 등 서구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과 관련해서, 탈북자들은 자신보다 남한사람

들이 성적 일탈행위를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성역할 고정관념도 덜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남한사회 유경험자가 특히 더 그러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매우 뚜렷하여 하위차원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자들이 남한사람들을 자신들보다 성적으로 더 개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남한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더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탈북자들이 남한사람보다 성적으로 더 보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이은숙, 1990; 전우택, 민성길, 1996; 정진경, 2002; 한성열, 2000). 문제는 이처럼 성적으로 보수적인 탈북자들이 남한사람들의 성에 대한 지나친 개방성을 단지 자신들과 크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성 관련 남한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앞서 언급한 감각적 및 퇴폐적 차원에서 남한사람들의 점수를 높게 평가한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남한사회에서의 삶의 경험이 탈북자들로 하여금 남한사회나 남한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양하기보다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탈북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한국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남한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그들의 설득을 통해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사람들은 남한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간단하게나마 역사·문화적 입장에서 볼 때, 남한사람들이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김진송(2002)에 따르면, 1920-30년대 한국의 근대화는 식민지적 구조에서 기형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근대화의 시작과 더불어, 일본과 서양을 통해 들어온 근대문물은 물질적 및 사상적

측면에서 서양에 대한 호기심과 선망을 불러 일으킨 동시에,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것에 대한 열등감과 자괴감을 야기하였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가치 있고 바람직한 것의 판단기준은 서양적인 것에 근거하게 됨으로써, 한국인들은 서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데 열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근대화에 따른 문화적 변동 속에서 한국인들은 서구문화와 전통문화의 부정적 측면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김병국, 1997; 나은영, 민경환, 1998; 함재봉, 1997). 또한, 한국사회가 권력이나 편법에 근거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물질적 이익을 앞세운 편법과 비리가 만연함으로써,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치 및 경제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무기력과 소외감이 비등해 왔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한국사회를 물질주의, 이기주의, 편법주의와 연고주의, 귀속주의 성격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며 퇴폐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한다(이재창 등, 1983; 정태연, 2001; 정태연, 한광희, 2001).

남한사회에 대한 남한사람들 의부정적 인식은 남한사회에 대한 탈북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단순히 사실의 왜곡이 아니라 진실을 반영함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 인식을 일소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남한사람이나 탈북자 모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들의 사회정체감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사회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정체감으로서(Tajfel, 1982; Tajfel & Turner, 1979), 그 사회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신이 소속된 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사회정체감 또한 심각한 손상과 혼란을 겪게 마련이다.

탈북자 자신들의 변화

본 연구는 남한사회의 경험이 탈북자들의 자기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치관의 경우, 남한사회 유경험자의 자기평가 점수가 무경험자에 비해 측정된 모든 차원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대부분의 성격특질차원에서 자신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현실적 차원만은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치관과 성격특질의 몇몇 차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차원이 부정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한국사회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통해 탈북자들의 가치관이 전통문화와 서구문화의 부정적 특성을 더 크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격적인 특성도 이기적, 퇴폐적, 감각적 등 서구문화의 부정적 특성 그리고 폐쇄적, 권위적 등 전통문화의 부정적 특성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성격도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한사회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성적 일탈행위에 대해 덜 부정적이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도 더 낮았다. 이는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살면서 성에 대해 좀 더 개방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탈북자들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가령 성에 대한 인식에서 남한사람들과의 차이를 경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탈북자들의 자아인식에 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한사람들에 대한 인식에서처럼, 탈북자들은 성에 대한 자신의 개방적 변

화를 감각적 및 퇴폐적 등 부정적인 특성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이 탈북자들로 하여금 한국사회나 한국사람 및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역기능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의 직접적 경험이 탈북자들의 소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외감은 특정 사회에 대한 사회성원의 부정적 반응으로(McClosky & Schaar, 1965),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남한사람들보다 더 큰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김영만, 2003). 즉, 탈북자들은 무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및 사회적 고립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신을 둘러싸고 사회적 환경 및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는 이 사회와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나 의미부여 등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이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중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자신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실제 탈북자들의 삶의 질은 남한사람들보다 더 낮았다(김영만, 2003). 주관적 삶에는 건강이나 교육, 고용과 근로시간의 질, 시간과 여과, 물적 및 사회적 환경 등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주관적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Campbell, 1976).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탈북자들이 이 사회에 살면서 자신과 남한사회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이들이 처한 여러 열악한 물리적 조건과 함께 탈북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데 심리적인 요인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탈북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개입이 절실함을 시사해 준다. 물론 총체적인 수준에서 한국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작지만 실현 가능한 시도들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안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이 물질적인 요인에만 달려있지 않음을 함축한다. 기존의 연구들 역시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경제적 곤란임을 지적해 왔다(윤덕룡, 2002; 윤인진, 2000b; 이우영, 2003).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조건 이외에도 가치관이나 성격특성, 성에 관한 인식 등 여러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무엇보다도 가치관이나 성격특성 등 각 평가차원에서 사용된 단어의 추상성이 매우 높아, 탈북자들이 어떠한 측면에 근거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한 동일한 용어를 탈북자들은 남한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한 평가치의 의미가 연구자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본 연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문화적으로 다른 사회를 비교할 때 늘 직면하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절실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한사회 무경험자와 유경험자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여 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남한사회에 대한 경험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전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경험의 유무에 의해서만 나온 결과가 아닐 수 있다. 앞서 연구대상자에서 언급했듯이, 이 두 집단은 여러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특히, 유경험자들은 무경험자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더 높다. 오늘날처럼 탈북이 흔하지 않은 경우에 탈북한 사람들이 특수계층에 속한 경우가 많은데(유인진, 1999),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연구에서는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말 그대로 전반적인 모습을 제공해 줄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탈북자들이 어떠한 장면에서 한국사회나 한국사람 및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한 어떠한 요인이 그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본 연구는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연구를 통해 탈북자들의 삶을 좀 더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누리, 노영돈 (2003). 통일과 문화. 서울: 서울비평사.
- 김명세 (1998). '우열'과 '다름'의 남북 문화. 이영선 편, 통일을 위해 남한도 변해야 한다: 북한 출신 학자들의 주장과 남한 학자들의 논평(pp. 51-75). 서울: 오름.
- 김병국 (1997). 반유교적 유교정차: 한국 정치담론의 모순. 전통과 현대, 1, 50-73.
- 김영만 (2003). 탈북자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수 (2003). 탈북자 문제의 발생 원인과 현황.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통일방송연구 8: 탈북자문제의 이해(pp. 11-25). 서울: 한국방송.

- 김중태 (2003). 탈북자의 남한사회 정착문제.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통일방송연구 8: 탈북자문제의 이해(pp. 88-106). 서울: 한국방송.
- 김진송 (2002).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땀을 흘려라. 서울: 현실문화연구(현문서가).
- 김혜숙(2000).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 2000년도 춘계심포지움 논문집 (pp. 19-45).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독고순 (2001). 탈북 주민의 가치 정향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5(1), 149-174.
- 박순영 (2003). 탈북 어린이의 건강문제.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통일방송연구 8: 탈북자문제의 이해(pp. 59-65). 서울: 한국방송.
- 박현선 (2000).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재사회화: 경제적 재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2000년도 후기사학회 대회 논문집, 237-246.
- 박현선 (2003a). 탈북 여성 문제.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통일방송연구 8: 탈북자문제의 이해(pp. 79-87). 서울: 한국방송.
- 박현선 (2003b).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 성기중, 윤여상 (1999).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 한국동북아논총, 13, 3-20.
- 성영신, 서정희, 심진섭 (1995). 남북한의 경제심리비교. 이장호와 이춘제(공편),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남북한의 장벽을 넘어서.
- 윤덕룡 (2002). 탈북자 적응의 사회경제적 문제: 보호경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민성길, 전우택과 윤덕룡, 탈북자의 통일준비: 남북한 사람들의 정신사회적 갈등구조 및 그 해소방안(pp. 53-74).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 윤인진 (2000a).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부적응 문제 조사 및 적응력 향상 방안연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프로그램 용역과제보고서.
- 윤인진 (2000b).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 이기영 (1998).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8, 161-176.
- 이온죽 (1990).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참여. 북한연구, 1, 88-104.
- 이우영 (2003).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 이재창, 최운보, 정영애, 최경선 (1983). 청소년의 식구조 및 형성배경.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철 (2003). 탈북자가 말하는 남한사회.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통일방송연구 8: 탈북자문제의 이해(pp. 151-160). 서울: 한국방송.
- 임채완 (2001).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19, 53-78.
- 전우영,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 전우택 (1999a).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 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제 32회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 적응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전우택 (1999b).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 갈등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pp. 40-64). 서울: 통일연구원.
-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 (1997). 북한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145-161.
- 전우택, 윤덕룡, 강성록, 김형중, 민성길 (2002). 자원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민성길, 전우택과 윤덕룡, 탈북자의 통일준비: 남북한 사람들의 정신사회적 갈등구조 및 그 해소방안(pp. 75-93).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전우택, 민성길 (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정병호 (2003). 탈북 청소년 문제. KBS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통일방송연구 8: 탈북자문제의 이해(pp. 66-78). 서울: 한국방송.
- 정진경 (2002). 북한사람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2002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pp. 274-281).
- 정태연 (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1-19.
- 정태연, 최영진, 김영만 (2003). 탈북자가 본 북한의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남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3(3), 29-47.
- 정태연, 한광희 (2001). 20대가 지각한 청소년과 성인과의 세대차이. 한국노년학, 21(1), 1-14.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정민, 한성열 (200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01-126.
- 한성열 (2000). 북한의 문화적 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논문집: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pp. 131-153).
- 함재봉 (1997). 유교와 세계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 전통과 현대, 1, 26-49.
- 현성일 (199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정치·사회적 변화방향. 이영선 편 통일을 위해 남한도 변해야 한다: 북한 출신 학자들의 주장과 남한 학자들의 논평(pp. 13-26). 서울: 오름.
- 황무임 (1998). 북한의 인권 실태와 탈북자의 현황. 복지행정연구, 14, 1-23.
-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R. Dasen, J. W. Berry, & Sartorius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Sage.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rosby, F. (1976). A model of egotistical relative deprivation. *Psychological Review*, 83, 85-113.
- Felid, H. S. (1978).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56-179.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Hirayama, K. K., Hirayama, H., & Cetingok, M. (1993). Mental health promotion for Southeast Asian refugees in the USA. *International Social Work*, 36, 119-129.
- McClosky, H., & Schaar, J. H. (1965). Psychological dimension of ano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14-40.
- Paulhus, D. (1983). Sphere-specific measures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53-1265.

- Rettig, S., & Pasamanick, B. (1959). Changes in moral values among college students: A factorial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856-863.
- Tajfel, H.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33-48).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1 차원고접수일 : 2004. 9. 18
최종원고접수일 : 2004. 11. 20

K C I

Effects of North Korea Defectors' Living Experiences in South Korea on Their Self-perceptions and Perceptions of South Korea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Young-man Ki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Korea(R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North Korea defectors' living experiences in South Korea on their self-perceptions and perceptions of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66 defectors with no living experiences at all and 99 defectors with living experiences of an average of 2.7 years in South Korea. They were asked to rate their own as well as South Koreans' values, personality, attitudes toward sexual misbehavior, gender stereotypes. Also, they evaluated the society of South Korea and its political contro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ose defectors with living experiences tended to perceive more negatively their own and South Koreans as well, and yet that they were less negative for sexual misbehavior and weaker for gender stereotypes. Also, results suggested that living experiences led defectors to perceive South Korea in a more negative way. Tho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changes in culture.

key words : North Korea defectors, self-perception, value, personality, gender stereotype and perception of South Korea.